

意識發展의 辨證法的 過程(二)

B 自己意識과 世界鬪爭의 意義

裴相河

本論에 들어가기 前에 헤-겔의 用語 『自己意識』 또는 『世界鬪爭』의 意義를 그의 立場에 따라 紹介하는 同時에 아울러 吾人의 立場에서의 解釋도 또한 簡單하게 添加하여 들까한다.

自己意識이라 함은 헤-겔 自身에 依할 것 가트면 意識發展의 第二 階段에 屬하는 意識이라 한다. 그는 그의 哲學의 主要 部分인 『情神現象學』에 있어서 吾人의 意識은 必然的으로 다음과 가튼 辨證法過程으로써 發展하는 것이라 하였다.

卽

一, 對象的 意識

二, 自己意識

三, 理性意識

그리고 또한 그의 말을 빌면 意識은 理性意識으로서 止揚되어 理性意識에서 다시금 『情神』이란 階段이 延續된다. 情神도 또한 다음과 가튼 階段으로써 辨證法的으로 發表한다.

卽

一, 道德性的 情神

二, 論理性的 情神

三, 宗教性的 情神-絕對的智識

그럼으로 헤-겔을 따르면 自己意識은 意識이 絕對的 知識에 到達하기 爲한 第二 階段에 지나지 않는다.

根原의 意識은 感性的 對象을 認知하는 『對象的 意識』이요, 完成된 意識은 絕對的 知識을 把握한 『理性的 意識』임에 自己意識은 根原에서 完成까지의 道程的 階段的 意識에 지나지 안해 버린다. 따라서 헤-겔 自身으로써 볼 것 가트면 自己意識은 『自己自身을 意識하였다는 意識』, 다시 말하면 『自己自身

을 認識의 對象삼은 意識』을 뜻하는 수 박게 업다. 그러나 이는 明白히 헤-겔 自身으로써 『自身意識』이란 文字를 그릇 使用한 缺點에서 생겨나는 解釋이니 自己意識이라 함은 그 本來의 意味에 잇서서 決코 『自己自身을 意識하였다는 意識』이란 좁은 範圍에서만 使用될 것이 안이고 더욱 널리 意識의 對象에는 相關 할 것 업시 『自己가 무엇인지를 意識하고 있다』는 意識 그 自體를 表示하는 文字라 할 수 있다. 勿論 헤-겔의 뜻한 바에 卞라 自己意識이란 文句를 『自己自身을 意識하였다는 意識』으로도 使用 할 수 업는 바는 안이나 이와 가튼 解釋은 單只 그의 局限的 意味에 지나지 안홀 다름이니, 決코 自己意識의 全的 表現이라고는 할 수 업슬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헤-겔 哲學의 論理 自體의 過誤임이 안이요, 單純히 文學誤用에서 생겨난 末稍的 缺點에 지나지 안는다. 그럼으로 吾人은 헤-겔이 局限的 意味에서 使用한 바, 『自己意識이란 文句를 그의 全領域的 意味에다 擴張식혀 自己自身을 意味하였다는 意識이든 또는 自己自身안인 다른 存在를 意識한 意識이든 意識의 對象에는 相關 할 것 업시 무엇이든지를 自己自身이 意識 할 수 있다는 純然한 意識 그 自體로써 뜻향둔다. 卞라서 吾人의 니르는 바 『自己意識』은 데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럼으로 나는 있다.』의 『나는 생각한다.』와 同一한 內容을 表現한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事實! 이것은 다른 모든 存在를 否認하드래도 否認 할 수 업는 假然한 實在이다. 내가 생각하고 잇슴으로써 모든 思惟作用은 그의 活動性을 어들 수 잇는 것이며 또한 思惟의 產物인 모든 理論도 그의 成立性을 가질 수 잇는 바이다. 그럼으로 헤-겔의 뜻한 바 自己意識은 自己自身이 意識하고 있다는 意識이다. 前者의 그것은 『自己自身을 意識』함이고, 後者의 그것은 『自己自身の 意識』이다.

이에 卞라서 헤-겔의 自己意識은 意識 發展過程의 第二次媒介的 意識이 엿스나마 吾人의 意味하는 自己意識은 헤-겔의 對象的 意識 헤겔의 니르는 바, 『根原的 意識』보담도 先行하는 第一次의 根原的 意識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自己意識이 업슬진대 何等의 對象도 또한 思想 또는 意識 할 수 업기 卞문이다. 이와 가튼 自己意識은 모든 意識作用의 總合 體 또는 根原인 意識 그 自體의 根本實在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特히 注意하지 안흐면 안될 바는 自己意識이란 決코 個人에게 特殊한 個別的 意識이 아니라는 點이다. 自己意識의 『自己라 함은 個個의 自己를 뜻 함이 안이요, 모든 自己에서 抽象된 『一般的 自己』를 뜻함 임에 卞라서 自己意識은 모든 自己에게 普遍的인 意識 卽 칸트의 『意識一般』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그러면 한層 더욱 깊히 이러한 自己意識은 또한 어셔한 構造에서 생겨나는

것인가? 自己意識의 生成根原은 무엇일까? -여기에 對한 解答을 두고 唯物論, 唯心論은 한 거름도 讓步치 안코 서로히 循環한다. 그리고 唯心論者인 『데카-트』는 이에 關해서 가장 自己 諷刺的인 答案을 써두었스니, -意識發生의 機關은 松果腺이라-고 松科腺이라 함은 아마도 大腦의 微妙한 機能體를 뜻함인가? 松科腺? 大腦의 微妙한 機能體? 두어라! 오로지 模호스런 말들이로다. 吾人은 『먹고 사는 哲學을 哲學하는 哲學家이와 가튼 問題에 關心 할 배 업슬 것이라 한다. 이는 發達된 生理學 또는 心理學의 任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發達된 生理學 또는 心理學은 그의 根本原理의 하나로써 『意識은 大腦의 作用이다.』를 前提하고 잇기 때문이다.

×

世界鬪爭의 義意

헤-겔의 뜻한 바, 『世界』는 가장 넓은 그림으로 가장 漠然스런 世界이다. 吾人이 常識的으로 니르는 바의 世界. 卽, 自然과 人爲의 모든 것의 總合體인 抽象의 世界를 뜻한 것 같다. 그림으로 그의 使用한 바, 『世界鬪爭』도 또한 가장 □□한 싸라서 가장 □□한 □妙的 鬪爭을 意味하는 수 박게 업시 되었다. 이는 形而上學的 觀念論 으로써의 不可能한 □□이다. 왜 그러냐하면 形而上學的 觀念自體가 밧서 가장 □□한 가장 漠然한 가장 □□한 가장 抽象的인 骸骨的 學問이기 때문이다. 그림으로 吾人은 吾人의 立場에 서서 世界鬪爭의 眞實한 具體的인 □確한 意味를 究明하지 안흐면 안된다. 吾人의 뜻하는 바, □ 世界鬪爭의 『世界』는 헤-겔이 表示한 바와 가튼 □汎한 漠然한 抽象的인 自自然人爲의 總合體的 世界를 意味함이 안이오 더욱 좁은 範圍의 具體的인 □成의 人的 世界를 意味한다.

現代의 生存者는 自然的 世界에 對한 鬪爭보담 사람과 사람이 만드려 노흔 人的 世界에 對한 鬪爭의 □急性을 더욱 切實히 늦기기 때문이다.

□成의 人的 世界에 對한 鬪爭! 이라하고 보니 몹시도 不□한 듯 십다. 그러나 이로써 不□하다 叱□ 할 □成人이 잇슬 것 가트면 가장 忠良한 獨逸國民이 모다가 只今까지 至極히 崇拜하여 오든 헤-겔의 哲學은 體□『不□』의 罪名으로 매질하여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成의 人的 世界에 對한 鬪爭』은 決코 吾人의 創作句가 안이오, 헤-겔 哲學 自體 『設令 □□스리 表現하였다 하드래도』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먼침에도 말한 바와 가튼 本論은 한 개의 『헤-겔 哲學紹介文』에 슯한 것에 지나지 안흐려 함에 헤-겔 哲學의 □□한 것

抽象的인 것을 具體的으로 明確히 表示하면 그만일 다름이다. 이곳에서 그림으로 本論은 決코 한개의 宣傳文으로써 自□함이 안이오 世界鬪爭의 意識이

이미 □前에 現存 함을 보고 前提하며 다못 그것의 必然的 生成過程을 哲學的으로 檢討하려 함에 지나지 안는다. 換言하면 이러한 意識이 어셔한 不可能의 必然性으로 말미암아 이미 世界鬪爭의 意識에까지 向□되지 안흐면 아니 되었는가? 그리고 그의 過程은 어셔한가?-에 關한 『헤-겔』의 論述을 忠實히만 紹介하였스면 그만일 다름이다.

이는 後章에서 論述 할 바이다. 그러나 그 먼침 『헤-겔』哲學과 『맑스』理論과의 接□點에 關해서 몇마디 添言을 簡單하게 序文的으로 添言하여 둔다.